

보도시점

2023. 7. 15.(토) 11:30

배포

2023. 7. 15.(월) 11:30

농어촌공사, 극한호우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 CEO 주재 장마 대처상황 긴급점검 회의 소집해 철저한 대처 주문 -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이병호 사장주재로 긴급안전 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3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에 이병호 사장 주재로 전국 9개 본부, 4개 사업단이 참여하는 긴급 안전 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공사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에 상시로 배수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저수지 월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율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유지, 주민대피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가동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호우가 집중된 충남, 충북,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554개소 배수장

을 가동하는 등 호우로 인한 농업시설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아주 과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우리 직원들과 감시원들의 안전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안전경영실	책임자	부 장	이준구 (061-338-6711)
	재난안전부	담당자	차 장	박하승 (061-338-6721)